

신유물론, 해러웨이, 퇴비주의

주 기 화

(건국대학교 교수)

◆ 국문초록

이 글은 다나 해러웨이의 '우리는 퇴비다'라는 선언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고, 세계를 이해하는 관점을 어떻게 바꾸었으며, 그리고 왜 지금 이것이 필요한지 살펴본다. 이를 위해 첫째, 데카르트의 이원론을 해체하는 해러웨이의 '자연문화' 개념을 신유물론 페미니즘 맥락에서 살펴본다. 둘째, '우리는 퇴비다'라는 해러웨이의 윤리-존재-인식-론을 생태진화발생생물학 차원에서 과학적·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린 마굴리스의 공생발생 이론, 마이크로바이옴 개념, 비키 현의 동물권 인식을 차용하여, 장내 미생물과 인간의 공동생성적 반려 관계를 살펴본다. 셋째, 기존의 포스트휴머니즘을 인간 예외주의와 추상적 미래주의로 비판하면서, 포스트휴머니즘과 결별하는 그의 새로운 윤리-존재-인식-론을 '퇴비주의'로 부를 것을 제안한다.

주제어 : 신유물론, 다나 해러웨이, 퇴비주의, 퇴비 선언

1. 들어가며

다나 해러웨이(Donna j. Haraway)는 2014년 캐리 울프(Cary Wolfe)와의 인터뷰에서, 크리터들(critters)¹⁾과 우리가 위협에 처한, “여기”는

1) 크리터들(critters)이란 “미국에서 온갖 종류의 성가신 동물을 가리키는 일상적인 관용어”인데, 해러웨이는 그 의미를 확장하여 “미생물, 식물, 동물, 인간과 비인간, 그리고 때로는 기계까지 잡다한 것들을 포함한다”(Haraway 2016a:169).

어디이고, “우리”는 누구인지 묻는다(2016b:217). 그의 대답은 이렇다. “우리가 사는 곳은 인간성(humanities)이 아닌 부식토성(humusties)을 띠고 있으며”(2016a:97), “우리에게는 인간성(human-ities) 대신, 부식토성(humus-ities)이 있다(Franklin:51). “우리는 부식토(humus)이지, 호모(Homo)나 인간(human)이 아니다. 우리는 퇴비(compost)이지, 포스트휴먼(posthuman)이 아니다”(2016a: 55). 그는 인류세(Anthropocene)와 자본세(Capitalocene)라고 불리는 손상된 지구에서 크리터들, 복수종(multispecies)이 함께 잘 살고 잘 죽기 위해서는 우리가 퇴비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놀랍고 당혹스러운 대체(substitution)”(Sinclair and Hayes:124)를, 그는 “농담”이지만 농담 이상이라고 말하는데(Franklin:50), “철학적으로 그리고 물질적으로, 나는 퇴비주의자(compostist)이지 포스트휴머니스트(posthumanist)가 아니다”(2016a:97)라는 반복적 선언은 농담 이상으로 진지하다.

해러웨이는 1985년 「사이보그 선언」(“A Cyborg Manifesto”)에서 2003년 「반려종 선언」(“The Companion Species Manifesto”)까지 자연과 문화 이분법을 넘어서는 새로운 관계 맺기 방식을 사이보그(cyborg)와 반려종(companion species)이라는 은유(metaphor)로 제시해왔고, 이제 퇴비라는 은유를 통해 쓸루세(Chthulucene)에서의 ‘복수종 퇴비 공동체’(Multispecies Compost Community)를 강조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인간은 원래 땅속에서 온갖 크리터들과 함께 서로를 오염시키고 감염시키면서 뒤얽혀 서로를 만드는 존재, 퇴비다. 인간은 원래 예외적인 인간, 신에 가까운 근대적 인간이 아니다. 해러웨이는 휴먼의 잔향이 남아 있는 기존의 포스트휴머니즘을 인간 예외주의와 “추상적 미래주의”(abstract futurism)로 비판하면서(2016a:4), 포스트휴머니즘과 결별하는 새로운 “윤리-존재-인식-론”(ethico-onto-epistem-ology, Barad:185)을 제안한다. 필자는 인간은 퇴비라는 그의 선언과 새로운 윤리-존재-인식-론을 ‘퇴비 선언’(compost manifesto)과 ‘퇴비주의’(compostism)로 부를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퇴비주의는 우리가 원래 퇴비임을 인식하고 “살

만한, 번성하는 세계”를 위해, 타자들과 “함께-되기”(becoming-with)라는 여러 겹의 기이한 실천을 가차없이(relentless) 시도하라고 촉구한다(Haraway 2016a:168). 인간의 자격과 역량에 대해 새롭게 이야기하는 퇴비주의는 오늘날 냉소주의와 패배주의를 넘어, ‘트러블과 함께 하는’(staying with the trouble) 활기찬 관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담론들과 차별화된다.

이 글의 목적은 해러웨이의 ‘퇴비 선언’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고, 세계를 이해하는 관점을 어떻게 바꾸었으며, 그리고 왜 지금 이것이 필요한지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르네 데카르트(René Descartes)의 이원론(dualism)을 해체하는 해러웨이의 ‘자연문화’(naturecultures) 개념을 신유물론 페미니즘(New Material Feminism) 맥락에서 살펴본다. 둘째, 인간은 퇴비라는 해러웨이의 윤리-존재-인식-론을 생태진화발생생물학(ecological evolutionary developmental biology, EcoEvoDevo) 차원에서 과학적·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린 마글리스(Lynn Margulis)의 공생발생(symbiogenesis) 이론, 마이크로바이옴(microbiome) 개념, 비키 헨(Vicki Hearne)의 동물권 인식을 차용하여, 장내 미생물과 인간의 공동생성적(symptiotic) 반려 관계를 살펴본다. 셋째, 기존의 포스트휴머니즘을 인간 예외주의와 추상적 미래주의로 비판하면서, 포스트휴머니즘과 결별하는 그의 새로운 윤리-존재-인식-론을 ‘퇴비주의’로 부를 것을 제안한다.

II. 신유물론과 페미니즘

근대로 접어드는 문턱이자 신이 사라진 시대인 17세기에 인간을 정의하는 데 있어 “유럽은 갈림길에 직면했다. 그들에게는 2가지 선택지가 있었다. 데카르트의 길과 스피노자의 길”이었다(히켈:352). 일신교적이고 기계론적인 사고에서 출발한 데카르트는 인간은 두 개의 실체인

마음(영혼)과 물질로 구분된다고 보았다. 마음은 특별하며 신의 영역이고, 몸은 비활성이고 기계적인 물질, 자연의 영역이다. 마음을 가진 인간은 이성이 있어서 생각할 수 있지만, 생각하지 못하는 나머지 세계는 마음껏 착취해도 된다고 여겼다. 바뤼흐 스피노자(Baruch Spinoza)는 데카르트와 정반대로 생각했다. 그는 우주가 하나의 궁극적 원인으로부터 출현했으므로 신과 영혼, 인간과 자연이 다른 종류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의 실체에 의해 지배되는 다른 측면들이라고 주장했다(히켈:351). 그의 일원론적 우주(monistic-universe) 개념은 모든 것이 물질이자 마음이자 신이라고 본다. 이것은 초월적인 신을 부정하고 인간의 자연 지배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었다. 데카르트의 이원론은 과학적, 경험적 증거에 기반하지 않았지만 “교회의 권력을 키우고, 노동과 자연에 대한 자본주의적 착취를 정당화했으며, 식민주의에 도덕적 면죄부를 부여했기 때문에” 지배층에서 대중화되었다(히켈:349). 결국 “교회와 자본의 든든한 뒷배 덕분에 데카르트의 관점이 승리를 거두었고” 이는 지배층에 정당성을 부여했다(히켈:352).

데카르트를 포함한 서양 철학자들은 정신과 몸을 구분하고 항상 정신에 우위를 두었지만, 사실 삶에서 몸과 정신의 층위들은 식별이 거의 불가능하다. 오늘날 과학자들은 정신과 물질, 인간과 비인간(nonhuman) 존재들 사이에 근본적 구별과 차이가 없음을 확인했다. 인간과 동물은 동일한 생물로부터 진화했고, 우주는 동일한 양자물리학의 지배를 받는다. 기계론적 과학에 입각했던 데카르트의 이원론이 현대 과학에 의해 무너지고, 이제 스피노자는 현대 유럽 철학과 과학사에서 최고의 사상가로 찬양받고 있다(히켈:353). 스피노자 등의 일원론적 우주관을 토대로 하는 현대 학계의 흐름이 바로 신유물론(New Materialism)이다. 과학이 변하면서 존재론적 패러다임이 일원론적인 신유물론으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데카르트의 이원론적 문화, 즉 근대성 속에 살고 있다. 그 결과가 인류세의 기후변화이고, 코로나19 팬데믹이다. 이원론 대신 일원론 사상이 지지되었더라면 세상은 다를 수도 있었다.

세계를 이분하여 서로를 배타적 관계로 보는 이원론의 역사와 철학은 특권적인 소수 지배계급을 정당화하기 위해 만들어지고 학습된 것이다. 이원론에 기초한 근대적 인간은 한낱 이데올로기이자 신화에 불과하다. 해러웨이의 말처럼 “우리는 살(flesh) 속에서 이데올로기만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서로 함께 살아가므로” 이데올로기보다 훨씬 더 큰 “이야기들”에 우리의 희망이 있다(2016b:109). 인간에 의해 야기된 여섯번째 대멸종의 시기에 다른 방식으로 보기, 다른 이야기를 해야 한다.

해러웨이는 “서구 전통에서는 특정 이원론들이 유지되어 왔다. 이 이원론 모두는 여성, 유색인, 자연, 노동자, 동물, 간단히 말해 자아를 비추는 거울 노릇을 하라고 구성된 타자로 이루어진 모든 이들을 지배하는 논리 및 실천 체계를 제공해왔다”고 말한다(2016b:59). 이 골치 아프고, 내구성 강한 이항대립적인 이원론 때문에 실로 오랜 동안 여성의 몸은 자연과 연관되었고, 페미니스트들은 물질에 대한 공포, 자연이라는 유령에 사로잡혀 있었다. 20세기 초 시몬 드 보부아르(Simone de Beauvoir)는 ‘여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며 여성과 자연의 고리를 어떻게든 끊어내려 했지만 사회학적 성(gender)을 강조할수록 오히려 이원론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몸을 무시하고 소거하는 꼴이 되어 버렸다.

그러나 몸 없이는 여성도 페미니즘도 세계도 존재할 수 없다. 이원론에 발목 잡히지 않고서도 몸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확보할 수 있는 토대, 몸의 물질성을 복원하고 새롭게 담론화할 수 있는 방법론이 필요했다. 스테이시 앨라이모(Stacy Alaimo)와 수잔 헤크먼(Susan Hekman)은 “그 자체로 활동적이고 때로 저항적인 힘인 몸의 물질성에 대해 우리가 말할 방식이 필요하다”고 보았다(4). 페미니스트들은 이제 생물학적 결정론과 성/젠더 이분법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오히려 물질과 몸을 강조하고 재정의하면서 그것의 행위능력에 주목한다. 이들은 새롭게 등장한 닐스 보어(Niels Bohr)의 양자역학적 인식들과 사이버네틱스 이론, 그리고

기존의 스피노자와 알프레드 노스 화이트헤드(Alfred North Whitehead) 등이 주장한 정신-물질 일원론을 페미니즘적으로, 탈인간중심적으로 읽어 내면서 이항대립적 구도에서 빠져나와 유물론적 전회, 신유물론을 선도하고 있다. 현재 신유물론은 인류세를 위한 이론으로서 “여러 방면에서 최고조에 도달하고 있으며”(Dolphijn and Tuin:16) 그 최전선에 페미니즘 사상가이자, 생물학자, 과학학자, 문화비평가인 해러웨이가 있다. “우리 시대에 스피노자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그의 연구는 페미니스트들에게 영감을 주면서 신유물론 구석구석에 스며있다(Negri and Hardt:91).²⁾

III. 해러웨이의 자연문화 : 사이보그와 반려종

신유물론은 데카르트적 이원론을 해체하기 위해, 해러웨이가 “자연문화”(naturecultures)라고 부른 것에 초점을 맞춘다(2016b:94). 더 정확히는 이원론의 대립항들에서 무시되어 왔던 물질에 특별한 관심을 둔다. 해러웨이는 평생을 데카르트의 이원론과 대결했고, 그 대결을 위한 핵심 개념이 ‘자연문화’다. 그는 문화와 분리된 자연이 없음을 나타내기 위해 두 단어를 붙여 ‘자연문화’라고 부른다. 자연문화란 자연과 문화로 대표되는 이항대립적 항들의 연속성, 분리불가능을 나타낸다. 사이보그, 반려종, 퇴비, 코로나19 팬데믹, 기후변화, 인간 등 세상 모든 것들은 자연과 문화의 합작품, 자연문화적 현상들이다.

해러웨이의 사이보그는 유기체와 기계, 물질과 비물질, 인간과 동물의 경계가 와해되며 출현하는 자연문화의 대표적인 이미지로, “이원론의 미로에서 탈출하는 길을 제안한다”(2016b:67). 테크노사이언스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던 당시의 페미니스트들과는 달리, 그는 “기계는 우

2) 해러웨이와 스피노자의 관계를 신유물론 관점에서 보는 논문으로는 Barbara S. Stengel(2019) 참조.

리이고, 우리의 과정들, 체현의 한 측면”이라고 보았다(2016b:65). 해러웨이는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기술에도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 이익을 쥐어 짜내는 자본이 장악한 GMO 기술에만 반대할 뿐이어서, 『트리블과 함께하기:자식이 아니라 친척을 만들자』(*Staying with the Trouble: Making Kin in the Chthulucene*)에서는 각종 멸종 위기 종들의 유전자를 접합한 인간-동물 공생자(symbiont)를 미래의 지구인으로 상상한다. 이처럼 그는 하나의 실재를 지배체제 강화와 저항 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동시에 볼 것을 요청한다. 그것이 정치투쟁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순진하게 기술애호적이어도 안 되겠지만, 기술공포증적이어도 안될 것이다. 특히 “기술공포증은 새로운 기술을 만드는 데 쏟은 인간의 에너지, 지능, 상상력의 엄청난 투자를 부정한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브라이도티:280).

해러웨이의 반려종 또한 자연/문화 이분법에 문제를 제기하는 이미지이다. 그는 자신의 반려견(Ms. Cayenne Pepper)과의 밀접한 신체적 관계를 통해 개가 자신의 세포를 몽땅 “식민화하고” 있어서, DNA 검사를 해보면 둘 사이에 “감염”이 이루어졌음이 밝혀질 거라면서 이는 공생발생의 분명한 사례라고 말한다(2016b:93). 마굴리스에 따르면 공생발생이란, “장기간 지속적으로 공생 관계가 확립됨으로써 새로운 조직, 기관, 생물, 더 나아가 종이 생성되는 것”을 말한다(1998:8). 해러웨이의 개 이야기는 인간과 개의 연결된 관계가 서로의 살 속에 체현된, “자연 문화의 공생발생적 세포 조직”(2016b:108)을 잘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공진화(coevolution) 역사에서 무시되었던 개의 능동적인 행위능력을 강조한다.

반려(companion)라는 말은 식탁에 둘러앉아 함께 빵을 나눈다(cum-panis)는 라틴어에서 비롯됐다. 식구, 반려, “소중한 타자들”(significant others)의 관계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다(Haraway 2016b:134). 반려 인간과의 소통은 반려 동물과의 소통보다 더 불통일 때가 많다. 반려와의 관계는 달콤한 천국이기도 하지만 지옥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다. 반려들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죽음이 그들을 갈라놓을 때까지 “가족”이며, 이 가족은 상속된 역사라는 “괴물의 뱃속에서 자라났고, 변형되기 위해서는 그 안에서 살아야 한다”(2016b:108). 반려종은 생물학적 분류군인 ‘종’(species) 범주를 거부하면서, 인간과 동식물은 물론 기계 사이의 종을 가로지르는 반려 관계를 단위로 한다. 반려종에게 분석의 최소 단위는 유전자가 아니라 “관계”다(2016b:111). 반려종은 홀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의 반려종을 만드려면 적어도 두 개의 종이 있어야 한다. [...] 공구성적(co-constitutive) 관계를 이루는 어느 쪽도 관계보다 먼저 존재하지 않으며, 이런 관계는 단번에 맺어질 수도 없다”(2016b:103).

IV. 해러웨이의 퇴비주의

1. 공동생성, 테라폴리스

해러웨이는 반려종의 공구성적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 “공동생성”(sympoiesis)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만든다(2016a:33).³⁾ 움베르토 마투라나(Humberto Maturana)와 프란시스코 바렐라(Francisco Varela)가 제안한 ‘자율생산’(autopoiesis)에서 ‘자율’을 의미하는 ‘auto’를, ‘함께’를 의미하는 ‘sym’으로 바꾼 ‘공동생성’을 제안하여, 반려종들의 상호구성적

3) 심포이에시스(sympoiesis)는 ‘함께 생산하다,’ ‘함께 제작하다’는 뜻으로 사람에게 따라 ‘공동생성’(홍성욱:9), ‘공동제작’(김애령:20), ‘공생발생’(김은주:365), ‘공산’(共産, 최유미:7) 등으로 번역하는데, ‘공산’은 카를 마르크스(Karl Marx)의 이분법적 정치학을 상기시키고, ‘공생발생’은 마굴리스의 공생발생과 혼동되며, ‘공동제작’은 생물학적 뉘앙스를 살리지 못하므로, ‘공동생성’으로 번역하고자 한다. ‘심포이에시스’는 1998년 베스 템스터(M. Beth Dempster)가 “자기-규정적인 공간적 혹은 시간적 경계가 없는 집합적 산출 시스템을 칭하기 위해” 해러웨이보다 먼저 제안한 용어이기도 하다(Haraway 2016a:33).

이고 상호유도적인 ‘함께 만들기’(making-with), 공진화를 강조한다. 그는 “공동생성은 단순한 낱말이다. ‘함께 만들기’라는 뜻이다. 어떤 것도 자기 자신을 스스로 만들지 못한다. [...] 지구 생명체들은 결코 혼자가 아니다. 이것이 공동생성의 근본적인 함의다. [...] 이것은 함께-세계 만들기(worlding-with)를 위해 쓰이는 말이다”라고 설명한다(2016a:58).

해러웨이에 따르면 반려종들의 공동생성은 패턴을 만들어서 주고받는 “실뜨기”(string figures) 게임을 닮았다(2016a:10). 실뜨기 게임의 플레이어들인 “크리터들은 테라폴리스(terrapolis)라고 불리는 n-차원의 틈새 공간에 산다”(2016a:11). 죽을 운명의 크리터들은 하늘보다는 진흙의 존재자들로서 “수많은 장소와 시간, 수많은 물질과 의미의 무한 연쇄에 얽혀 있다”(2016a:1). 이들이 얽혀 있는 공간이 테라폴리스다. 테라폴리스는 땅, 지구를 의미하는 테라(terra)와 정치체를 의미하는 폴리스(polis)를 합성한 말로, 크리터들은 이 테라폴리스에서 모두 등당한 권리를 지닌 시민으로서, 죽고 사는 뒤엎힌 문제를 풀기 위해 협상하고 연대하고 싸우고 배신하는 정치적인 플레이어들이다. 매듭을 만들고 푸는 크리터들의 정치 지대인 테라폴리스는 의외의 반려종을 위한 공간으로, 그들은 근대인들이 그어 놓은 이분법의 경계를 알지 못한다. 인간과 비인간, 포식자와 먹이, 주인과 노예가 어느날 갑자기 둘도 없는 반려가 된다.

테라폴리스는 크리터들이 언제나 너무나 많이 연결된 그물망, 중적분 방정식이다. 삶은 크리터들이 함께 풀어야 할 숙제라는 의미다. 플레이어들은 가능한 답을 찾기 위해, 즉 연결망 속에서 잘 살고 잘 죽기 위해, 어떻게든 서로에 대한 “응답-능력”(response-ability)을 키워야 한다(2016a:2). 응답하지 않거나, 성의 없이 기계적으로 응답하면 실뜨기 게임은 끝나게 되고, 직물은 풀어져서 너도 죽도 나도 죽는다. 크리터들은 지금 인간 때문에 풀려가는 직물 위에서 모두가 위태롭다. 고정된 실체가 아닌 과정으로서의 테라폴리스에서 문제와 응답, 실뜨기 매듭의 풀기와 엮기에는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 매번 갱신되는 기예(arts)가 필요하다. 그래

서 크리터들은 테라폴리스에서 테라포밍(terraforming)이라는 예술에 종사한다.

테라폴리스는 “호모(Homo)로서의 인간, 즉 더 없이 우화적이고 발기하고 위축하는, 남근 숭배적 동일자의 자아상,” “하이데거와 그의 추종자들이 이론화한 실존주의적이고 유대 없는 고독한 인간”을 위한 “고향”(home world)이 아니다(2016a:11). 이들은 트러블과 함께 하기 위한 고향, 테라폴리스를 만들 역량이 없다. 그렇다면 어떤 종류(kind)의 인간이, 트러블과 함께 하기 위한 고향인 테라폴리스의 시민이자 친척(kin)이 될 자격이 있다는 것일까?

2. 인간 말고 퇴비가 자격이 있다

해러웨이에 따르면, ‘human’은 게르만 조어와 고대 영어에서 온 ‘guman’에서 왔는데, ‘guman’은 땅의 일꾼이자 땅속의 일꾼을 의미한다(2016a:11). ‘guman’과 ‘human’은 땅과 크리터로 오염된 종류의 일꾼을 의미한다. 이 단어는 이후, 부식토(humus), 인간(humaine), 신들에 반대하는 땅의 존재들(earthly beings)로 다양하게 파생되었다. 해러웨이는 이러한 어원으로부터 땅속의 크리터, 부식토라는 의미를 끌어내어, “우리는 부식토이지, 호모나 인간이 아니다, 우리는 퇴비이지, 포스트휴먼이 아니다”라고 선언한다(2016a:55).

최유미에 따르면 원래 “퇴비는 농작물을 키우기 위해 만드는 거름으로 박테리아들이 죽은 유기체를 먹고 만든 배설물이다. 죽은 유기체가 박테리아의 먹이가 되고, 박테리아의 배설물은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어서 농작물을 키우는 식으로 퇴비는 삶과 죽음의 계속성을 만들어낸다”(해러웨이 13). 인간은 원래 땅속에서 온갖 크리터들과 함께 서로를 오염시키고 감염시키면서 뒤엎혀 발효하면서 서로를 만드는 존재들, 퇴비다. 인간은 원래 호모로서의 예외적인 인간(anthropos), 근대적 인간이 아니다. 테라폴리스는 원래의 의미인 ‘땅속의 일꾼’, 부식토로 변형될

인간만을 위한 고향이지, 포스트휴먼을 꿈꾸는 인간을 위한 고향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류세의 트러블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포스트휴먼이 아니라 부식토, 퇴비임을 인식하고, 크리터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신진대사 변형”에 과감히 뛰어들어야 게임할 자격이 있다(Haraway 2016a:102). “테라폴리스는 반려중, [...] 포스트휴먼이 아니라 퇴비를 위한 것이다”(2016a:11). 테라폴리스는 퇴비 더미이고, 인간은 퇴비이자 크리터로서 다른 크리터들과 퇴비를 만든다. 퇴비는 함께 식탁에서 먹고 먹히는 식사 동료인 반려중들의 공생적 얽힘, 공동생성을 보여주는 구체적 형상이다. 그는 사라 프랭클린(Sarah Franklin)과의 2016년 인터뷰에서, 퇴비 은유는 우리를 쉽게 복수종 속으로, 부식토 속으로, 지구에 관한 것들, 지구를 위한 것들 속으로 데려가기 위한 전략이자, “범주들을 너무 진지하게 여기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말한다(Franklin:50).

퇴비는 땅속예(chthonic) 사는 것들, 서로 얽히고, 진행 중이고, 생성적이고, 파괴적인 지구의 존재들과 거의 동의어다.⁴⁾ 퇴비는 땅과 깊이 관련된 관용어로서 복수종의 삶과 죽음, 먹고 먹히기, 상호의존적인 뒤얽힘, 공생, 자연문화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해러웨이는 우리가 지구에 살면서 온갖 크리터들과 함께 생성중인 퇴비임을 자각하라고 촉구한다. 그에 따르면 우리에게는 인간성 대신, 부식토성이 있다. 부식토성이란 인간을 포함한 모든 크리터가 공동생성적 얽힘 속에서, “생태-진화-발생의 현실적인 세계 만들기(worlding)와 해체하기 속에서 서로 함께 되고, 구성하고, 분해하는” 성질을 뜻한다(2016a:97). 부식토성을 가진 우리는 모두 퇴비다. 해러웨이는 “우리가 호모인 인간을 잘라내고 갈가리 찢어버릴 수 있다면 부식토로서의 인간은 잠재력이 있다고 본다”(2016a:32). 그는 위태로운 이 시대를 인간(Anthropos)이라는 단어로 명명하는 것은 너무나 주제넘고, 편협하므로 땅속의 많은 친척을 아우르는 단어인 ‘chthonic’을

4) 해러웨이에 따르면 고대 그리스어에서 파생된 “chthonic”이라는 말은 ‘땅의’(of the earth)에 해당하는 크토니오스(khthonios)와 ‘땅’(earth)에 해당하는 크톤(khthón)에서 나왔다(2016a:173).

사용하여 인류세와 자본세 대신 쓸루세(Chthulucene)라고 새롭게 명명한다. “쓸루세는 공-지하적인(symchthonic) 것들, 공생발생적이고 공동생성적인 지상의 것들의 시공간이다”(2016a:71). 해러웨이가 볼 때 인류세와 자본세는 “주된 행위자를 자본주의와 인간이라는 너무나 큰 이야기들 속의 너무나 큰 플레이어들에게만 국한하기”(2016a: 55) 때문에, 냉소주의와 패배주의에 가담하기 쉽다. 그는 “쓸루세에서 강력한 연대를 통한 함께 살기와 함께 죽기는 인간과 자본의 명령에 대한 치열한 대응일 수 있다”고 본다(2016a:2).

3. 우리는 퇴비다

인간은 퇴비라는 해러웨이의 윤리-존재-인식-론을 생태진화발생생물학으로 이해하기 위해, 그가 영감을 받은 공생발생 이론과 마이크로바이옴 개념을 차용하여, 인간과 공생 미생물의 공동생성적 관계를 경유해보자. 마굴리스는 “진화적 변화를 유발하는, 장기적인 안정적 공생을” 공생발생이라고 부른다(2002:33). 공생(symbiosis)이란 상이한 생물들이 함께 사는 것이다. 해러웨이에 따르면, 이종(異種) 개체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지속적인 신체적 결합은 그것이 무엇이든 즉, “한쪽에 이롭든 양쪽에 이롭든, 혹은 그 이상이든 이롭지 않든 관계없이” 모두 ‘공생’이다(2016a:218). “공생은 “상호 이익이 되는”이라는 말과 동의어가 아니다”(2016a:60). 공생발생 이론에 따르면 공생은 종 진화의 엔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인간도 이로부터 생성·진화해왔다. 인간의 계보를 끝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세균, 미생물이 나온다. 마굴리스는 “인간은 신의 창조물이 아니라 매 순간 반응하는 미생물들이 수십억 년에 걸쳐 상호작용한 산물이다”라고 말한다(1998:5).

해러웨이에게 “퇴비 더미는 다양한 젠더와 다양한 종류의 크리터들이 발효하는 마이크로바이옴이다”(2016a:25).⁵⁾ 우리가 인식하기도 인정하기도 쉽지 않지만, 사실 우리 몸은 마이크로바이옴에게 완전히 점령

되어 있다(Yong:2). 우리의 피부, 내장, 세포, 계놈에는 온통 미생물투성이이다. 우리 몸에는 약 100조 개의 미생물이 인간과 공존한다. 인간의 몸에서 인체 세포가 차지하는 비율은 10%에 불과하다. 이 공생 미생물들이 없다면 인간은 독립된 단위로 생존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진화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미생물 대부분은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거나 염증 발생에 관여하는 물질을 분비하여 우리 몸의 대사, 영양, 면역, 신경 등을 조절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브뤼노 라투르(Bruno Latour)의 말처럼 인간과 비인간이 상호 의존적으로 구성된 하이브리드(hybrids), “집합체”(collective)라고 할 수 있다(4). 비인간 타자와 구분되는 독립적이고 순수한 ‘나 자신’ 같은 것은 환상이다. 인간의 순수성에는 신학적 혐의가 있다. 개체였던 적이 없었던 우리는 개체를 다시 정의하고 비인간과 인간의 불가분성, 비인간의 주요한 행위능력을 인식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산호초에서든 인간의 소화관에서든, 미생물과 인간의 공생관계를 파괴함으로써, 지난 수백만 년 동안 함께해온 종들을 강제로 떼어놓고 있다”(Yong:141). 인간 인식과 실제 사이의 거리는 비극적으로 멀다. 해러웨이는 “경계가 있는 개체주의”(bounded individualism)는 더 이상 사유의 수단으로는 쓸모없게 되어 버렸다고 말하면서, 대신 퇴비 은유를 가져온다(2016a:5).

일종의 생태계인 대장(大腸)의 마이크로바이옴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의존해서 살아간다. 그들은 우리가 소화하지 못해서 남은 음식을 주로 먹고산다. 우리가 먹는 음식물은 그래서 중요하다. 하지만 정작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들이 뭘 먹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배설하느냐다. 마이크로바이옴은 천 가지가 넘는 다양한 물질을 만드는데, 이것이 대장 벽을 통해 혈관으로 들어가고, 이후 이 고속도로를 타고 간, 뇌 등 어떤 장기에도 쉽게 다다를 수 있다(천중식). 그리하여 우리의 건강과 질병,

5) 마이크로바이옴은 미생물분류군을 의미하는 마이크로바이오타(microbiota)와 계놈(genome)의 합성어로, 우리 몸에 살고 있는 미생물과 이들의 유전정보 전체, 미생물군전체, 미생물군집을 의미한다.

성생활과 진화까지 좌우한다. 예를 들어 우리의 배설물, 즉 “똥”은 마이크로바이옴에 영향을 주고, 그들의 배설물은 우리의 “체취”에 영향을 주고, 체취는 성적 매력에 영향을 주어, 파리에서부터 인간까지 공생 미생물은 “성생활”과 생식, 유전적 종분화에 중요하다(Yong:161).

팀 스펙터(Tim Spector)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단순히 인체에 영양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장 안에 살고 있는 수조 마리의 미생물들에게 먹이를 주는 것”이라고 말하는데(김병희), 우리가 그들에게 먹이를 주는 이유는 그들의 배설물을 받아먹기 위해서다. 우리의 배설물은 장내 미생물의 먹이가 되고, 그들의 배설물은 우리 몸을 만든다. 미생물들, 박테리아들이 먹고 만든 배설물로 만들어진 우리 몸은 말 그대로 퇴비다. 퇴비 속에서, 우리는 식탁에 함께 한다. 퇴비는 복수종의 삶과 죽음이 상호의존적, 연속적으로 뒤얽힌 구체적인 형상이다. 해러웨이에 따르면 이 형상은 “자신의-꼬리를-삼키는-뱀” 우로보로스(Uroboros)를 닮았는데, 입과 똥구멍이 연결되어 배설물을 먹는 이 뱀은 헬레니즘적인 전일적 완성이 아니라 물질적 순환 과정을 나타낸다(2016b:280).

4. 균본주의(microbiomism)

미생물과 인간의 공생적 얽힘인 마이크로바이옴, 즉 퇴비 속에서 이들 공-지하적인 반력들은 서로의 몸을 함께 만들면서 거듭 출현한다. 이들은 종을 넘어서는, 환원불가능한 차이를 넘어 이루어지는 “소통”의 결과물이다(Haraway 2016b:140). 인간의 언어와는 다른 매개로 진행되는 대화에서 미생물들이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무엇을 바라는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서로의 신호를 잘 이해해야 하고 마음을 잘 읽어야 한다(2016b:178). 미생물들과 우리의 이러한 밀월 관계의 산물, 퇴비가 우리의 몸이다. 그래서 해러웨이에게 “퇴비 만 들기는 끝내주는”(Composting is so hot!), 에코섹슈얼(ecosexual) 러브스토리다(2016a 61:242). 이 밀월관계가 뜨겁지 않아 냉랭하거나 서로 오

해하여 불화하면 질병 위험이 높아져 모두의 생명이 위태롭게 된다.

예를 들어 장내 미생물의 중요한 활동 중 하나는 우리의 면역계를 훈련시키는 것이다. 면역계가 나쁜 균들을 식별하고, 면역물질인 사이토카인(cytokine)을 분비하고, 이 물질을 과다하게 분비하지 않도록 훈련시킨다. 훈련이 잘못되면, 퇴치 대상인 항원을 넘어 인체를 공격하는 ‘자가면역질환’이 발생한다. 미생물들이 우리의 면역 시스템을 잘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중한 파트너이자 반려 관계인 미생물과 우리 사이에서, 서로가 익숙해지고 가르치고 설득하는 부단한 훈련은 필수적이다. 해러웨이가 「반려종 선언」을 “면역계를 형상화하면서 시작하는” 이유다(2016b:272)

해러웨이는 반려종으로 관계 맺는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현의 인식을 경유하는데, “현은 인간뿐 아니라 개 역시 종에 특유한 방식으로 상황을 도덕적으로 이해하거나 성취를 진지하게 열망하는 능력을 타고난 존재라고 본다”(2016b:182). 신유물론에 따르면 이러한 개의 능력은 모든 크리터, 세포, 분자에까지 동일하지는 않지만 연속적으로 확대·적용할 수 있다. 필자는 인간이 퇴비임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현의 이해를, 장내 미생물과 인간의 반려 관계에 적용해 보고자 한다. 장내 미생물과 인간이 지난하고 부단한 훈련 과정을 통해 깊은 신뢰가 쌓이면, 원활한 소통과 배설물들의 순환 속에서 온전하고 건강한 퇴비더미가 된다. 반려 관계인 이들은 훈련이라는 관계의 재구성 작업을 통해 서로의 내면에 있는 “소질”(talent)을 끄집어내고 이러한 “성취”(achievement)를 통해 함께 “만족”(satisfaction)과 “행복”(happiness), 즉 웰빙을 얻는다. 이러한 만족과 행복은, 미생물과 인간이 자신들의 아리스토텔레스적 “탁월함을 열망하기”(yearning for excellence), 그리고 그 “탁월함에 도달하기 위해 기회를 잡기”와 관련된다(2016b:143, 180).

장내 미생물, 퇴비 속의 크리터들이 탁월함을 열망하고 시도한다는 생각은 너무 과한 것일까? 우리가 신유물론적 사유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지, 제인 베넷(Jane Bennett) 같은 생기적 신유물론자들은 틀림없이

왜 미생물들이 탁월함을 열망하고 시도할 수 없다고 쉽게 판단하는지 알고 싶어 할 것이다. 퇴비를 만드는 지렁이들이 “특정 상황과 그 가능성에 맞춰 자신들의 기술을 조정한다”(Bennett:96)고 주장한 찰스 다윈(Charles Darwin) 또한 필자의 생각이 과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다윈은 45년 동안 지렁이를 탐구하여, 이들이 의식적인 행동과 지적 능력을 갖추고 토지를 경작하면서 세계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음을 밝혔다. 해러웨이의 퇴비 선언의 핵심은 지구 행성을 손상시키는 우리가 이 크리터들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헌은 토머스 제퍼슨(Thomas Jefferson)의, 경계가 뚜렷하게 분리된 개인들의 자산(property)과 행복에 관한 권리(rights) 이해를 비판하면서, 그 권리의 기원은 “헌신적인(committed) 관계”에 있다고 본다(Haraway 2016b:144). 그리고 이것을 인간과 개의 관계에 적용한다. 헌의 주장을 다른 반려종에게로 확장하면, 미생물과 인간도 ‘관계’를 통해 서로에 대한 권리를 구축한다고 볼 수 있다. 동물권, 비인간들의 권리는 이미 있어서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의해 만들어지고 자라난다. 이 권리는 서로를 “점유”(possession)해서 훈련시키고 개조할 권리다. “반려종이란 가차없이 함께 되기이다”(2016a:13). ‘함께 되기’ 위해 상대방에게 “존중”(respect), “주의”(attention), “반응”(response)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2016b:144). 장내 미생물은 특정 인간의 몸을 점유하고, 면역계를 훈련시키면서 그 인간에 대한 권리를 확보한다. 미생물들이 인간(의 면역 시스템)을 훈련시켜 복종시키기란 벅찬 일이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 훈련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관계가 안정되면 “우리는 저마다 독특한 마이크로바이옴을 갖게 되고”(Yong:16), 이것은 목소리, 지문, 홍채처럼 생체인증 수단 중 하나로 쓰인다. 미생물들의 인간에 대한 고유하고 확실한 권리 주장이, 우리를 보증하는 셈이다. 내가 마이크로바이옴 하나를 가지고 있다면, 나의 마이크로바이옴은 인간을 하나 가지고 있는 셈이다. 필자의 이러한 이해는 해러웨이와 헌의 견본주의(犬本主義 caninism)를 릴레이해 실뜨기한 균본주의(菌本主義 microbiomism)라고 할 수 있다.

5. 나그네 크리터의 기여

우리 몸에서 발견되는 미생물은, 잠깐 들렀다 몸 밖으로 나가는 ‘나그네’와 계속 몸속에서 살아가는 ‘주민’으로 대별할 수 있다(천종식). 나그네든 몸(땅)에 뿌리박은 것들(earthbound)이든 이들은 잠시 한 식탁에 둘러앉아 함께 빵을 나누는 한 종류(kind)로 묶인 친척(kin)일 뿐, 조만간 다른 몸(땅)을 찾아 떠날 나그네들(wayfarers), 여행자들(voyagers)이다. 해러웨이의 표현에 따르면, 언제나 떠나고 다시 돌아오는 “방탕한 딸(Prodigal Daughter)은 계속 나그네로 남는다”(2016a:178). 우리 몸은 나그네들인 인간과 미생물들의 일시적인 집합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먹는 음식물이 바뀌거나, 섹스 파트너가 바뀌거나, 방문하거나 머무르는 장소가 달라지거나, 복용하는 유산균과 항생제에 따라 우리의 마이크로바움 멤버들은 교체되어 떠나거나 죽거나 머무른다.

이들이 생각 없이 수동적으로 기계적으로 여행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마굴리스와 도리언 세이건(Dorian Sagan)은 의식을 측정할 수 없다고 해서 동물을 의식이 부재한 ‘본능적인 기계’라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고 본다. 그들은 “가장 단순한 의미에서 의식은 외부 세계를 인식하는 것으로,” “자율생산적인 모든 세포 역시 의식이 있다”고 본다(150). 모든 크리터들은 살아 있기 위해 자신의 주변 환경에 끊임없이 감각하고 활발하게 반응, 응답한다. 카렌 바라드(Karen Barad) 역시 “느낌, 욕망, 경험은 인간 의식만의 고유한 특성이 아니며,” “물질도 느끼고, 대화하고, 고통 받고, 욕망하고, 갈망하고, 기억한다”고 주장한다(Dolphijn and Tuin:59)

그래서 나그네 미생물뿐만 아니라 기꺼이 퇴비가 되려는 인간에게도 “모험, 호기심, 새로운 종류의 풍요와 기술에 대한 욕망” 그리고 “떠나려는 오래된 습관”은 매우 중요하다(Haraway 2016a:147). 해러웨이는 “기회주의적인 사회적 종들은 많이 돌아다니는 경향이 있다. 속박당하지 않은 인간들은 언제나 특별한 생태사회적 기회주의자(opportunist)이

고, 여행자이고, 길을 만드는 자였다”라고 말한다(2016a:148). 그가 말하는 기회주의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기회가 있을 때만 앞으로 나서는 사회적 종들이 아니라, 자신의 상황을 나아지게 하려고 기회를 이용하는 종들을 의미한다. 세속적 번성(worldly flourishing)을 위해 기회를 잘 만들고, 이용하는 크리터들은 그래서 순진무구하지(innocent) 않다. 유능한 나그네 크리터들의 덕목은 의외의 반려종들을 조우할 퇴비 더미에 가차없이 뛰어들어, 그들과 ‘함께 되기’ 위해 “닥치고 훈련”(Shut Up and Train)하는 것이다(2016a:102). 해러웨이가 볼 때 이것이 손상된 행성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기예다.

지구 행성이라는 퇴비 더미 속에서 인간과 미생물은 물론 동물, 식물, 기계, 쓰레기, 똥, 플라스틱 등 온갖 크리터들이 얽혀 사이보그적 ‘세계 만들기’를 한다. 「사이보그 선언」이 사이보그적 세계 만들기에서 ‘기술적 존재들’(techno entities)을 도두라지게 전경화했다면, 「반려종 선언」은 ‘동물’을 전경화했고(Franklin:55), 이제 해러웨이는 ‘퇴비 선언’을 통해 공-지하적인 크리터들의 ‘퇴비’를 전경화하면서, 복수종의 스토리텔링을 더 포괄적으로 작업 중이다. 필자는 퇴비 은유를 통해 제시하는 그의 새로운 윤리-존재-인식-론을 ‘퇴비주의’로 부를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V. 포스트휴머니즘을 넘어 퇴비주의로

해러웨이는 기존의 이론과 담론들의 퇴비 더미를 섞고 뒤집어 담론판을 재구성한다. 기존의 포스트휴머니즘을 분석하여 1)인간 예외주의적이고 추상적인 미래주의와, 2)‘퇴비 만들기’(composting)를 지향하는 미래주의로 구분한다.⁶⁾ 1)에는 트랜스휴머니스트, 생태근대주의자, 그

6) 미래주의는 원래 20세기 초 이탈리아와 러시아에서 등장한 아방가르드 사조다.

리고 일부 비판적 포스트휴머니스트들이 포함되는데,⁷⁾ 이 일부 비판적 포스트휴머니스트들은 현 상태의 변화를 위해 매우 열심히 일하지만 한편으로는 인간에 대한 불신과 신랄한 냉소, 너무 늦어 소용없다는 절망과 ‘게임 오버’식 태도를 보인다. 2)는 인구과잉 같은 현 상태의 심각성을 인정하지만 퇴비 더미에 뛰어들어 부활과 희망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트러블과 함께 하는’ 미래주의, 퇴비주의라고 할 수 있다. 둘 다 미래를 이야기하지만 성격이 판이하다. 그래서 해러웨이는 1)을 “미래주의”로 2)를 “트러블과 함께 하기”라고 부른다(2016a:4). 즉, 기존의 포스트휴머니즘을 해체하여 미래주의와 퇴비주의라는 2가지 갈림길을 제시한다. 그에 따르면, 비판적 포스트휴머니즘일지라도 1)의 성격이면 미래주의이고 2)의 태도를 보이면 퇴비주의이다.

두 번째 부류인 해러웨이의 퇴비주의에 대해서는 앞 장에서 설명했으니, 이 장에서는 첫 번째 부류 즉, 해러웨이가 ‘인간 예외주의적이고 추상적인 미래주의’라고 분석한 포스트휴머니즘 비판을 살펴본 후, 미래주의와 퇴비주의의 차이 혹은 관계에 대해 논하겠다.

1. 포스트휴머니즘 비판 1 : 인간 예외주의적 미래주의

해러웨이에게 ‘포스트-휴먼’(post-human)은 “향상된 우주 인류,” 인간의 최종적 궤적을 위해서 지구를 떠나는 종류의 인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터무니없는 용어다(Franklin:50). 그러나 ‘포스트휴머니즘’에 대해서는 좀 유보적이었다. 왜냐하면 포스트휴머니즘 표지 아래에서 휴머니즘에 비판적인 아주 중요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고, 친구들이 그 아래에서 창조적인 사유를 내놓고 있고, 자신이 포스트휴머니즘에 연루되어 있지

7) “포스트휴머니즘 논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트랜스휴머니즘이 인간과 비인간의 관계를 인간중심적으로 보면서 근대 휴머니즘의 연장선 위에 있다면, 비판적 포스트휴머니즘은 비인간을 인간과 동등한 행위자로 호명하여, 세계를 인간-비인간들의 네트워크로 상정한다”(주기화:211).

만, 정작 자신은 “포스트휴머니즘이라는 용어를 좋아한 적이 없기” 때 문이다(Haraway 2016b:261). 왜일까?

사실 포스트-휴머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에서 알 수 있듯이 접두사 ‘post’는 아직 휴머니즘과 모더니즘에 대해 할 이야기가 있다는 신호여 서, 비판적 포스트휴머니즘일지라도 ‘휴먼’의 잔향이 남아 있다. 또한 포스트휴머니즘은 트랜스휴머니즘의 종착점이라는 오해 또한 늘 달고 다닌다(Sinclair and Hayes:124). 즉 ‘포스트휴머니즘’은 해러웨이에게는 휴먼의 잔향이 남아있거나 가득한, 인간 예외주의적인 용어다. “어떤 이야기들이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는지가 중요하다”(Haraway 2016a:66). “다른 이야기를 하기 위해 어떤 이야기로부터 출발하느냐는 중요한 문제다”(최유미:299). 해러웨이는 ‘휴먼’을 가지고는 다른 새로운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그는 휴먼에 발목이 잡히지 않으면서도 복수종의 “부활”(resurgence, 2016:1)을 실천할 인류의 새로운 삶형태(form of life)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토대, 누더기가 된 생명력으로도 부활과 희망의 꿈을 키울 수 있는 토대, 상속된 근원적인 트러블에 굴하지 않고 세계의 부활을 갈망할 수 있는 토대가 필요했다. 그런데 파트너인 러스틴 호그니스(Rusten Hogness)와 집에서 아침식사를 하다가 그의 농담 같은 제안 덕분에, 인간은 포스트휴먼이 아니라 퇴비라는 은유를 얻을 수 있었다. 식탁에 둘러앉아 함께 빵을 나누는 반려 관계 속에서, 퇴비 속에서 새로운 개념이 창발한 것이다. 해러웨이는 이제 ‘휴먼’ 대신 ‘퇴비’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싶어한다. 인간은 원래 퇴비이기 때문이다.

퇴비 은유는 그냥 단순한 은유가 아니다. “육체적 인지실천(corporeal cognitive practice)을 실제로 실행시킨다”(Haraway 2016b:277). 은유는 한 사물을 다른 사물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경험하는 것으로, 실재를 인식하는 관점이나 방식이다. 은유는 단지 수사가 아니라 인간의 이해와 추론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며, 경험의 세계와 추상적 아이디어를 연결하는 단서다. 추상적 개념은 대체로 은유적이어서 철학도 과학도 은

유를 피할 수 없다. 은유는 모호하지만, 인간 상상력의 원천이자 새로운 의미 창출의 토대다(김진호·김상미:147-148). 해러웨이의 퇴비 은유는 새로운 인식을 시작할 수 있게 하는 단서다.

퇴비 은유는 모든 크리터들이 수평적으로, 기호론적으로, 계보 상으로 공통의 ‘육신’을 공유하고 있음을 직관적으로 알게 하여, 우리를 쉽게 복수종 속으로 데려가기 위한 해러웨이의 전략이다. 인간은 원래 땅속에서 온갖 크리터와 함께 살면서 서로를 오염시키고 감염시키면서 뒤엎혀 발효하면서 서로를 만드는 존재다. 퇴비인 우리는 복수종들의 공동생성적 집합체, “어셈블리지”(assemblage)이다(Deleuze and Guattari:4). 우리는 개체를 다시 정의하고 비인간과 인간의 불가분성, 비인간의 주요한 행위능력을 인식해야 한다. 스콧 길버트(Scott Gilbert) 등의 말처럼 “우리는 개체였던 적이 없었다”(325). 해러웨이는 휴먼의 잔향이 가득한 포스트휴머니즘을 인간 예외주의로 비판하면서, 포스트휴머니즘과는 결별하는 새로운 ‘윤리-존재-인식-론,’ 퇴비주의를 제안한다.

2. 포스트휴머니즘 비판 II: 추상적 미래주의

포스트휴머니즘을 비판하면서 이를 대체하고자 하는 해러웨이의 퇴비 선언은, 근대적 휴머니즘에 맞서 대안 담론을 모색하는 비판적 포스트휴머니스트들을 적잖이 당혹스럽게 만든다. 그가 거부하는 것은 트랜스휴머니즘일까? 아니면 비판적 포스트휴머니즘을 포함한 포스트휴머니즘 전체일까?

해러웨이는 『트리블과 함께하기』 서문에서 “이 책은 미래주의를 멀리 하면서, 트리블과 함께 하기가 더 중요할 뿐만 아니라 더 활기차다고 주장한다”고 밝힌다(4). ‘트리블과 함께 하기’는 이 책의 제목이자, 책에서 줄곧 이야기하는 ‘퇴비 만들기를 지향하는 미래주의,’ 퇴비주의라고 할 수 있다. 퇴비주의는, 우리는 모두 근대적 인간이 아니라 원래 퇴비이므로, 퇴비 더미에 뛰어들어 공-지하적인 것들과, 유망하거나 위험한

전염성있는 트러블을 만들면서 그곳에 살라는 것이다. 해러웨이에 따르면, 그 외의 것들은 모두 미래주의로서 우리가 멀리 피해야 하는 것들이다.

그는 인류세와 자본세가 불러일으킨 공포에 대한 2가지 반응을 ‘미래주의’라고 부르며 강하게 비판한다. 첫번째 반응은, 기술적 해법(혹은 기술 목시록)에 대한 생태근대주의자들과 트랜스휴머니스트들의 우스꽝스러운 믿음이고, 두 번째 반응은 현상태의 변화를 위해 “매우 열심히 일하면서도 신랄한 냉소를 보내는 사람들”의 “게임 오버”식 태도이다. 해러웨이가 볼 때, 더 문제적인 후자는 인간에 대한 불신과 신랄한 냉소, 너무 늦어 소용없다는 절망과 ‘게임 오버’식 태도로 사람들을 좌절에 빠뜨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지치지 않는 열정과 기술로 복수종을 번성시키기 위해 실질적으로 일하고 놀이하는, 기이한 결합의 모습”을 보인다. 이들에게 중요한 일의 기준은 관계와 과정이 아니라, 성과와 문제 해결이다. 이를 위해 생각하고 읽고 연구하고 토론하고 돌보는 이들은, 이따금 너무 많이 알고 너무 심각(heavy)하다. 이들은 미래의 대안적인 더 좋은 결과와 효과들을 생각하느라 트러블을 일소하는 종말까지도 대안일 수 있다고 여기며, “종말이 정말로 가까이 왔다고 결론 내릴 만큼 자신이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종말은 땅에 뿌리내리고 사는 존재들의 분투와 지속성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것으로, 세속적인 삶에 대한 무관심의 정치의 궁극을 나타낸다. 이들의 방점은 땅에 있지 않고 ‘추상적인’ 미래에 있다. 해러웨이는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미래주의”에 의해 촉진되는 “일부 비판적 문화이론가나 정치적 진보주의자들”을 “추상적인 미래주의”라고 부르면서, 이 추상적 미래주의의 “승고한 절망의 정서와 무관심의 정치학에 굴복하는 것”과, 인구과잉 같은 트러블의 심각성을 인정하는 것과는 아주 미세한 차이가 있다고 분석한다(2016a:3-4). 이러한 분석은 미세한 차이들을 보이면서 불분명하게 섞여 있는 일부 비판적 포스트휴머니즘들에 대한 정치(精緻)한 비판이다. 해러웨이는 비판적 포스트휴머니스트일지라도 절망의 정서와 무관심의 정치학에 굴복하는 것은 추상적인 미래주의이며, 트러블과

함께 하기 위해 뜨거운 퇴비 더미 속으로 가차없이 뛰어들어 비인간들과 협력하는 활기 넘치는 퇴비주의만이 중요하다고 분명하게 선을 긋는다.

3. 미래주의 vs. 퇴비주의

해러웨이는 포스트휴머니즘을 휴먼의 잔향을 간직하는 인간 예외주의와, 기술적 해법(혹은 기술 목시록)에 대한 막연한 믿음을 가지면서 절망의 정서와 무관심의 정치학에 굴복하는 추상적인 미래주의로 비판하면서, 손상된 삶과 땅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퇴비주의가 더 중요하고, 활기가 넘치고, 잠재력이 있다고 본다. 그에 따르면 퇴비주의는 어원적으로, 그리고 생태진화발생생물학적으로 인간 예외주의와 포스트휴머니즘에 “예방접종되어” 면역력을 갖추고 있다(2016a:11). 그가 미래주의에 대해 정확히 정의하거나 설명하지 않고서, 미래주의 대 퇴비주의 전략을 펼치기 때문에, 사실 그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그의 발언들을 종합하면, 미래주의가 성과와 문제 해결,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결말, 추상적인 미래에 관심이 있는 반면, 퇴비주의는 관계와 과정에, 땅에 관심이 있다. 땅에 뿌리내린 존재들의 지속성과 웰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해러웨이는 2019년 스티브 폴슨(Steve Paulson)과의 라디오 인터뷰에서,⁸⁾ “미래주의가 우리를 좌절시키고 있다”면서, “우리의 일은 서로 함께 돌보고 두터운 시대를 사는 것”이라며, 자신의 퇴비주의를 대중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렸다(Paulson).

퇴비주의가 기존의 대안 담론들과 특히 차별화되는 지점은, 복수종의 함께 만들고, 함께 되는 성공적인 ‘삶’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죽음, 유한성, 필멸성’ 그리고 “비난받을 만한 실패”(Franklin:51)의 문제를 포함하는 데도, 전혀 우울하거나 절망적이거나 비극적인 방식이 아니라는 점이다.

8) 이 인터뷰는 위스콘신 공영 라디오(Wisconsin Public Radio)의 “To The Best of Our Knowledge” 프로그램에서 2019년 12월 6일 진행되었다.

퇴비는 “실수란 실수는 죄다 해도” 괜찮은 장소다(Haraway 2016b:163). 퇴비주의는 손상된 지구 행성의 파괴와 빈곤에 맞서, 치유와 재건을 시도할 때 서투르거나, 잘못하거나, 실패하는 것은 다반사여서 괜찮다고 말한다. 해러웨이는 손상된 지구 행성의 시스템적 긴급성을 다룰 때 두려움과 망설임은 온당치 않다고 본다. 왜냐하면 공-지하적인 것들은 구성하고 분해할 때, 위험하거나 유망한 실천들에서 “머뭇거리” 일이 없기 때문이다(2016a:102). 퇴비주의가 가지는 이러한 “가차없이 실패하기에 대한 개방성”(2016b:227)은 우리가 되풀이되는 역사의 근원적 트라우마에 직면해서도 냉소주의와 패배주의를 넘어, 트러블과 함께 하는 데 있어, 활기찬 부활과 희망의 관점을 제공한다. 퇴비주의가 가지는 “영속농업”(2016a:24)의 힘, “테라에서 솟아오르는”(2016b:294) 힘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땅의 힘이 상처입은 사람들의 냉소와 절망을 치료하고, 무엇이든 시도하고 어떻게든 해보려는 투지를 키운다. 무엇이든 시도하고 어떻게든 해보려면, 의외의 퇴비 더미에도 가차없이 뛰어들어 반려종을 조우할 기회를 만들어야 하고, 상대방이 무엇을 바라는지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살펴야 하고, 상대방의 신호를 놓치지 않고 잘 이해해야 하고, 예의 바른 태도로 정중하게 설득해야 하며, 안정적인 관계가 형성되면 헌신적이어야 하는데, 어떻게 주위에, 상대방에게 무관심할 수 있겠는가? 퇴비주의자들이 절망의 정서와 무관심의 정치학에 쉽게 굴복하지 않는 이유다.

해러웨이가 ‘퇴비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한 적이 없으며,⁹⁾ 퇴비 은유가 가지는 모호함 때문에, ‘퇴비주의’ 표지 아래 모여 이야기하는 것이 무리일 수도 있다. 하지만 긴급성의 시대에 그의 통찰을 잘 이해하여 우리의 삶형태를 바꾸기 위해서는 그의 독특한 사상에 대한 연속적인

9) ‘퇴비주의’라는 용어는 몇몇 사람들이 한두 번 사용했을 뿐이고, 해러웨이의 새로운 윤리-존재-인식-론을 ‘퇴비주의’로 정식으로 명명하고 논한 경우는 아직 없다. ‘퇴비주의’ 용어를 사용한 글로는 다음을 참조. Ursula K. Heise(2018:97), John Halstead(2019:31), Federica Timeto(2021:326).

실뜨기들이 릴레이될 필요가 있다. ‘퇴비주의’라는 실뜨기 방에 모여 수 많은 촉수를 뺀어 더 많은 물질-담론들을 끌어들이 실뜨기해보자는 것이다. 포스트휴머니즘에 연루되어 있음을 항상 불편해했던 그가, 이제 포스트휴머니즘을 넘어 퇴비주의를 펼치고 있고, 이에 영감을 받은 후속 연구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으므로, 그의 선언과 사상을 ‘퇴비 선언,’ ‘퇴비주의’라고 명명하더라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포스트휴머니즘과 퇴비주의의 차이 혹은 관계, 미래주의와 퇴비주의의 차이 혹은 관계, 퇴비주의에 대한 논의들이 더 많이 필요하다. 필자의 퇴비주의 명명은 범주를 거부하는 해러웨이에게 비난받을 만한 실패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가 만든 생각·사랑·분노·배려의 퇴비 더미가 더 뜨거워지기를 바라면서 제안하는 바이다.

VI. 나가며

이상에서 필자는 해러웨이의 사상을 신유물론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그의 퇴비 은유가 함의하는 바를 과학적·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공생발생, 마이크로바이옴, 현의 동물권 이해를 차용하여, 장내 미생물과 인간의 반려 관계에 적용해보았고, 인간은 퇴비라는 선언 및 윤리-존재-인식-론을 ‘퇴비 선언’과 ‘퇴비주의’로 부를 것을 제안하였다.

해러웨이는 회의주의와 패배주의에 맞서, 세상은 “여전히 바뀔 수 있다”고 말한다. 가이아가 어떻게 작동할지 제어할 순 없겠지만, 우리가 퇴비임을 자각하여 반려종들의 긴급한 호소에 응답하면서 두터운 현재를 가차없이 살다보면 몇 가지는 고칠 수 있다고 본다(Paulson). 그가 “계속 시작만 있고 결말은 나지 않는”(Haraway 2016a:29) 우로보로스 식 퇴비 만들기 이야기를 하고 또 하면서 “야단법석을 떠는”(216) 이유는, 강력한 찰나의 순간에 아무런 조건없이, 가차없이 서로 협력하면서 대안적인 길을 개척하는 ‘복수종 퇴비 공동체’들이 세계를 만들어왔으

며 지금도 조용히, 간신히 세계를 만들고 있음을 상기시키기 위함이다. 그의 퇴비주의는 냉소·절망·공포에 맞서 역사가 변할 수 있다는 희망을 포기하지 말라고 촉구한다.

오늘날 우리는 갈림길에 직면했다. 미래주의의 길과 퇴비주의의 길. 해러웨이는 이 험난한 시대에, “향후 언제까지나 순종할 돌아온 탕자, 법적 상속인을 위해 준비된 잔치로 향하는 포장도로인”(2016a:179) 미래주의보다, 계속 나그네로 남을 방탕한 딸을 위한 스피노자의 오솔길, 퇴비주의의 길이 훨씬 더 장래성이 있다고 본다. 어떤 길을 선택할지,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Woolf:60). 17세기 계몽주의 시대의 잘못된 선택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 참고문헌

- 김병희(2021.1.14.), 「건강, 유전보다 장내 미생물군 영향이 더 크다?」, *ScienceTimes*.
<https://www.sciencetimes.co.kr/news/%EA%B1%B4%EA%B0%95-%EC%9C%A0%EC%A0%84%EB%B3%B4%EB%8B%A4-%EC%9E%A5%EB%82%B4-%EB%AF%B8%EC%83%9D%EB%AC%BC%EA%B5%B0-%EC%98%81%ED%96%A5%EC%9D%B4-%EB%8D%94-%ED%81%AC%EB%8B%A4/#.YboUxm0DyVE.link> (검색일: 2022.1.1.)
- 김애령(2020), 「‘다른 세계화’의 가능성: 해러웨이의 「반려종 선언」 읽기」, 『코기토』 92,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7-35.
- 김은주(2020), 「인간중심주의를 넘어 반려종으로 존재하기를 생각한다: 최유미 『해러웨이, 공-산의 사유』(도서출판 b, 2020)」, 『안과밖:영미문학연구』 49, 영미문학연구회, 362-371.
- 김진호 · 김상미(2014), 「예비초등교사의 수학교과서에 대한 은유 분석」, 『수학교육』 53-1, 147-162.
- 도나 해러웨이 지음, 최유미 옮김(2021), 『트리블과 함께하기: 자식이 아니라 친척을 만들자』, 마농지.
- 로지 브라이도티 지음, 김은주 옮김(2020), 『변신: 되기의 유물론을 향해』, 꿈꾼문고.
- 제이슨 히켈 지음, 김현우 · 민정희 옮김(2021), 『적을수록 풍요롭다: 지구를 구하는 탈성장』, 창비.
- 주기화(2019), 「신유물론적 관점에서 본 토드 헤인즈의 <세이프>」, 『현대영미드라마』 32-1, 한국현대영미드라마학회, 207-233.
- 천종식(2018.9.30.), 「‘마이크로바이옴’이란?」.
<https://brunch.co.kr/@jongsikchun/1> (검색일: 2022.1.1.)
- 최유미(2020), 『해러웨이, 공-산의 사유』, b.
- 홍성욱(2021), 「포스트휴먼 테크놀로지」, 『인문학연구』 35, 인천대학교 인문학연구소, 3-35.

- Alaimo, Stacy and Susan Hekman(2008), "Introduction: Emerging Models of Materiality in Feminist Theory," *Material Feminisms*, ed. by Stacy Alaimo & Susan Hekman, Bloomington: Indiana UP, 1-19.
- Barad, Karen(2007), *Meeting the Universe Halfway: Quantum Physics and the Entanglement of Matter and Meaning*, Durham: Duke UP.
- Bennett, Jane(2010), *Vibrant Matter: A Political Ecology of Things*, Durham: Duke UP.
- Deleuze, Gilles and Felix Guattari(1987), *A Thousand Plateaus: Capitalism and Schizophrenia*, Minneapolis: U of Minnesota P.
- Dolphijn, Rick and Iris van der Tuin(2012), *New Materialism: Interviews and Cartographies*, Ann Arbor: Open Humanities Press.
- Franklin, Sarah(2017), "Staying with the Manifesto: An Interview with Donna Haraway," *Theory, Culture & Society* 34.4, 49-63.
- Gilbert, Scott F., Jan Sapp, and Alfred I. Tauber(2012), "A Symbiotic View of Life: We have never been Individuals," *The Quarterly Review of Biology* 87.4, 325-341.
- Halstead, John(2019), *Another End of the World is Possible*, London: Lulu.com.
- Haraway, Donna(2016a), *Staying with the Trouble: Making Kin in the Chthulucene*, Durham: Duke UP.
- _____ (2016b), *Manifestly Haraway*, Minneapolis: U of Minnesota P.
- Heise, Ursula K.(2018), "Stories for a Multispecies Future," *Dialogues in Human Geography* 8.1, 96-99.
- <http://search.ebscohost.com.ssl.proxy.konkuk.ac.kr:8080/login.aspx?direct=true&db=edo&AN=ejs44910379&lang=ko&site=eds-live&scope=site> (검색일: 2022.2.9.)
- Latour, Bruno(1993), *We Have Never Been Modern*, tr. by Catherine

- Porter, Cambridge, Mass: Harvard UP.
- Margulis, Lynn(1998), *Symbiotic Planet: A New Look at Evolution*, New York: Basic Books.
- _____ (2002), *Acquiring Genomes: A Theory of the Origins of Species*, New York: Basic Books.
- Margulis, Lynn and Dorion Sagan(2000), *What is life?*, Berkeley: U of California P.
- Negri, Antonio and Michael Hardt(2000), *Empire*, Cambridge, MA: Harvard UP.
- Paulson, Steve(6 Dec 2019), “Making Kin: An Interview with Donna Haraway,” *Los Angeles Review of Books(LARB)*.
<https://www.lareviewofbooks.org/article/making-kin-an-interview-with-donna-haraway/> (검색일: 2022.1.1.)
- Sinclair, Christine and Sarah Hayes(2019), “Between the Post and the Com-Post: Examining the Postdigital ‘Work’ of a Prefix,” *Postdigital Science and Education* 1.1, 119-131.
- Stengel, Barbara S.(2019), “Com-Posting Experimental Futures: Pragmatists Making (Odd)Kin with New Materialists,” *Studies in Philosophy and Education* 38, 7-29.
- Timeto, Federica(2021), “Becoming-with in a Compost Society—Haraway beyond Posthumanism,”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ology and Social Policy* 41.3/4, 315-330.
- Wolf, Virginia(2020). *Three Guineas*, Warszawa: Ktoczyta.pl, *ProQuest Ebook Central*. (검색일: 2022.1.1.)
- Yong, Ed(2016), *I Contain Multitudes: The Microbes within Us and a Grand View of Life*, New York: Ecco, an Imprint of Harper Collins Publishers.

❖ ABSTRACT

New Materialism, Donna Haraway, Compostism

Joo, Kee Wha
Konkuk University

This paper examines the context in which Donna Haraway's 'we are compost' manifesto was conceived, how it changed our perception and understanding of the world, and why we need it now. First, I examine Haraway's concept of 'naturecultures', which deconstructs the dualism of René Descartes, in the context of New Material Feminism. Second, to scientifically and intuitively understand Haraway's ethics-onto-epistem-ology of 'we are compost' in ecological evolutionary developmental biology (EcoEvoDevo), by borrowing the concept of Lynn Margulis's symbiogenesis, microbiome, and Vicki Hearne's animal rights, I examine the sym-poietic companionship between gut microbes and humans. Third, I propose to call her new ethics-onto-epistem-ology, which criticizes posthumanism as human exceptionalism and abstract futurism, as 'compostism'.

Key Words : New Materialism, Donna Haraway, Compostism, Compost Manifesto

- 논문접수일 : 2022. 01. 11
- 심사완료일 : 2022. 02. 03
- 게재확정일 : 2022. 02. 03